**자유논제1**

**Q. 요조가 말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나요? 그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조의 입장에서 ‘세상이란 개인이다’ 라는 말은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고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조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조는 끝내 친구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후에 요조는 남의 시선에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말은 결국 세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몫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유논제2**

**Q. 인간은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욕구 충족과 쾌락이 원인일걸까요?**

인간이 술과 담배를 계속 찾는 이유는 욕구 충족과 쾌락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연히 시작했다가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중독된다기 보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다 보니 더욱 스스로 그만두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담배는 피워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술과 담배가 힘든 삶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택논제1**

**Q. 인간실격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거의 반 평생을 경제적으로 생가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독립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자이 오사무에게 가족은 절대적이고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도 주인공 요조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 무조건 물질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독립이란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잘 알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논제2**

**Q. 친한 지인을 험담하는 것을 봤을 때 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른 척하는 게 옳을까?**

제가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친한 지인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험담한 사실을 굳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두명의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면, 와전이 될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험담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험담한 사람이 실제로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인은 험담한 사람을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